

## 한자로 기록된 우리 말 노래에 대한 리해

김 희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찬란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학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6권 160~161페이지)

우리 선조들이 오랜 역사적기간 창조하여놓은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는 고전문학유산도 있다.

고전문학유산은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정서와 기호에 맞게 발전시키며 문학작품창작에서 민족적특성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고전문학유산에는 한문으로 기록된것이 적지 않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글말생활에 한문이 리용되였다. 지어 봉건통치배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다음에도 우리 글을 천시하면서 한문을 숭상하였으며 글말생활에서 주로 한문을 사용하였다.

이로 하여 우리 나라 고전문학유산에는 특히 고전시가작품들가운데는 한문으로 기록된것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문으로 기록된 시가작품들가운데는 전형적인 한문운문형식으로 창작된것들이 대부분이지만 한자로 기록된 우리 말 노래도 있다.

한자로 기록된 우리 말 노래는 본래 고유한 우리 말로 창작되어 불리워졌지만 한자로 그 내용만을 기록한것으로서 운률구성에서 한문운문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말로 된 노래를 기록하면서도 한문의 운문형식 다시말하여 운률조성에서 전형적인 운문형식을 리용한것이 아니라 우리 말의 어순과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민족의 원시가요인 《거부기노래》를 한자로 기록한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거부기노래》는 원시인들의 생활을 반영한것으로서 가락국의 건국설화와 관련되어있는 작품이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들어라  
들지를 앉으면  
구워서 먹겠다

일연(1206—1289)이 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가락국기에는 이 노래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이것은 비록 한자로 되어있지만 한문의 운문형식으로가 아니라 가요의 내용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기록하여놓은것이다.

작품에서 운률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문의 운문형식을 가지고서는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과 함축미를 가지는 우리 민족가요의 형식상특징을 살리기 어려웠기때문이다.

가요에서 《何》는 우리 말 호격토 《아》를 나타낸것이다. 즉 한자 《何》의 음을 빌어 우리 말 호격토 《아》를 기록하였던것이다.

《아》를 《하》로 쓴것은 백제가요 《정음》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樂學軌範》卷三《舞鼓》)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리용하면서도 한문의 운문형식을 따른것이 아니라 우리 말 노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옮겨놓기 위해 노력하였던것이다.

《거북기노래》의 전승과정에 나온 가요인 《바다의 노래》(海歌)를 보면 우리 말 노래를 한자로 기록한것과 한문운문형식으로 기록한것의 차이를 잘 알수 있다.

龜乎龜乎出水路  
掠人婦女罪何極  
汝若榜逆不出獻  
入網捕掠燐之喫  
(《三國遺事》卷二 水路夫人《海歌》)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 내나라  
남의 안해 훔쳐간 그 죄 얼마나 크랴  
네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먹겠다

《바다의 노래》는 한문운문형식으로 우리 말 노래를 기록한것으로서 운(《極》,《喫》)을 달아 지은 작품이다. 그리고 《거북아 거북아》를 《龜乎龜乎》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乎》는 한문에서 부름말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조사이다.

후에 한문운문창작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많은 한자시들이 나올 때에도 우리 말 노래는 한문운문형식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문의 운문형식으로는 우리 말 노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정확히 기록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실례로 길재(1353-1419)가 여덟살때에 지어불렀다고 하는 노래를 들수 있다.

驚兮驚兮 汝亦失母乎 吾亦失母矣  
吾知其烹汝食之 汝之失母猶我也 是以放汝  
(《冶隱集》上《行狀》)

이것은 명백히 한문의 운문형식이 아니다. 한자로 썼지만 운을 달지 않았고 운률도 한문운문의 운률구성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다만 조사 《亦》, 《乎》, 《矣》, 《之》, 《其》, 《也》, 《以》 등을 리용하여 내용만을 옮겨놓았을뿐이다.

전반적인 문장구조는 우리 말로 된 노래의 내용만 그대로 옮겨놓은 산문구이다.

이 노래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가재야 가재야  
너도 엄마 잃었느냐  
나도 엄마 잃었단다  
너를 삶아 먹을줄 내 알지만  
엄마 잃은 너 나와 같기에  
그래서 살려준다

노래는 동요다운 양상을 가지고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한문문장을 보면 운자를 달지 않았고 음수률을 한문운문의 요구대로 한것이 아니라 한문의 종결조사 《乎》, 《矣》를 써주어 우리 말의 의문문, 서술문을 구별해놓았으며 부름말도 《거부기노래》에서처럼 우리 말의 호격로 《아》를 《何》로 기록한것이 아니라 한문문장의 요구대로 조사 《兮》를 리용하였다.

이것은 우리 말로 된 노래를 기록하는데 한문의 운문형식을 리용한것이 아니라 우리 말 노래의 뜻을 정확히 나타낼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하였고 행은 문장단위로 구분해놓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말 노래를 한자로 기록하면서 한문의 운문형식을 리용하지 않았던것은 한문의 운문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거나 한문운문창작기량이 원만하지 못해서가 아니였다.

19세기에도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말 노래를 기록하면서 한문운문형식을 리용한것이 아니라 한자를 가지고 우리 말을 그대로 기록하기에 힘썼다.

리유원(1814-1888)은 《림하필기》(林下筆記)에 당시 어린이들속에서 불리우던 노래인 《달아 달아》를 기록하면서 첫번째 행은 7언, 두번째 행은 6언으로 한개 련을 이루고 3·3조로 운률을 조성하였다. 한문운문에는 이러한 운률을 가진 행이 없다.

그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한개 행을 《月兮月兮明月兮》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동요의 내용과 운률을 가능한것 그대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자어휘들을 우리 말 어순에 따라 배열한 문장이다. 문장전반이 한문의 고유한 운문의 운률구성방식을 리용하지 않았고 조사 《兮》를 리용하여 부름말을 만들어주었다.

우리 말 노래에 대한 이러한 기록방법은 특히 우리 민족고유의 시가형식인 시조를 기록하는데서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되였다.

시조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국문시가형식이다. 비록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한문

운문형식이 아니었을뿐아니라 그 표기방식도 독특하였다.

정몽주(1337-1392)의 시조와 그것을 한자로 기록한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이 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라

이 시조를 한자로 기록한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此身死了死了 一百番更死了  
白骨爲塵土 魂魄有也無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也歟  
(《丹心歌》《圃隱集續錄》卷一 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시가형식인 시조는 3장으로 이루어지고 매개 장의 운틀이 대체로 고정되어있다. 한문의 운문형식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살려낼수 없었다. 그러므로 한자를 가지고 시조의 내용을 가능한것 살리는 방향에서 한자를 리용하여 세 행으로 옮겨놓았던것이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우리 말 노래를 한자로 기록할 때에는 한문의 운문형식을 리용하지 않고 노래의 내용을 살리는 방향에서 문장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한자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시가형식인 시조를 옮기거나 우리 민족의 가요작품을 기록하는것을 한문운문과 명백히 구별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문인들은 시조를 한자로 옮기거나 우리 민족가요를 한자로 기록한것을 《노래》(歌) 또는 《가요》(歌謠)라고 하였다.

18세기의 문인인 홍량호(1724-1802)는 《이계집》(耳溪集)에서 김응서(1564-1624)가 이역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시조 한수와 한자시 한편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노래》 즉 《가》(歌)\*와 《절》(絶)로 구별하였다.

\*《乃作歌一闕書簡尾 其歌曰 死已死已吾爲君死已 向君心去而愈新 何許妄佞人死也未也》(《耳溪集》卷十八)

이 시조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님을 위해 죽으리라  
님을 향한 이 마음은 갈수록 더 새롭구나  
어떻게 망녕된 사람이 죽는다만다 하시고

이 작품은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한문운문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운(《已》, 《而》, 《也》)을 달지 않았고 산문구처럼 조사를 많이 썼으며 구나 련구성에서 규칙성이 없기때문이다. 첫번째 구는 9언, 두번째 구는 7언, 세번째 구는 9언으로 한개 련을 이루었다.

홍량호는 김응서가 쓴 한자시에 대해서는 《절》(絶)\*이라고 표제를 달았다. 여기서 《절》

이란 한문운문형식의 하나인 《절구》라는 뜻이다.

\* 《又作一絶 曰獐風驅雪夜何深 寒透將軍病臥衾 朝來強起彈弓坐 猶有天山大獵心》(우와 같은 책)

이 작품은 7언요절(拗絶)인데 그것을 수록하면서 《절》이라고 표제를 단것은 한문운문의 한 형식인 절구라는것을 밝혀놓은것이다.

한편 홍량호는 《이계집》에서 《가요》(歌謠)라는 제목을 달고 당시 함경도지방 인민들속에서 불리우던 노래들을 한자로 기록하였다. 이것도 우리 말 노래를 한문의 운문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이상의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글말생활에 한자를 리용하면서 우리 말 노래를 한자로 기록한것과 한문운문방식으로 창작한것을 철저히 구별해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한자로 우리 말 노래를 기록하면서 향찰(鄉札)을 리용하였던것도 한문운문과 구별되는 우리 말 가요를 더 정확하게, 내용은 물론 형식까지도 그대로 기록하려는 진지한 노력과정에 이루어졌던 현상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향찰은 우리 나라에서 한자의 뜻과 음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기록하던 독특한 서사방식인 리두가 발전하여 생겨난것이였다. 향찰은 우리 말의 입말까지도 그대로 기록할수 있는 서사방식이였다.

우리 나라 가요는 우리 말 어휘로 되어있고 고유한 운률을 가지고있다. 이것을 한문의 운문형식으로는 그대로 옮길수 없었다. 그래서 한자로 우리 말 노래를 기록하다가 그것이 발전하여 후에는 우리 말 단어의 형태, 문법 구조, 지어 운률까지도 가능한것 그대로 옮겨놓을수 있는 독특한 서사방식인 향찰을 창안하게 되었던것이다.

향찰에서는 극히례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어휘를 우리 말 어휘의 형태 그대로 표기하며 문장에서 우리 말 토들을 모두 기록한다.

현재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향찰로 제일먼저 기록된 노래는 《서동요》(薯童謠)이다.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卵乙抱遣去如  
(《三國遺事》卷二《武王》)

이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이틀  
밤이면 안고간다

우리 말 가요를 향찰로 기록한것은 한자로 옮겨놓은것에 비해볼 때 우리 말 가요의 원형에 보다 가깝다. 따라서 우리 민족가요의 원형을 리해하는데 더욱 편리하다.

결국 향찰은 우리 말 가요를 한문으로가 아니라 리두로 정확히 기록하려는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생겨난 서사방식이였다.

한자의 뜻과 음을 가지고 우리 말을 기록하는 서사방식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 말 노래를 원형 그대로 기록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이루어졌던 향찰은 우리 민족의 높은 민족의식과 창조적지혜의 산물이였다.

향찰로 우리 민족가요가 기록됨으로써 민족시가는 자기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창작될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시가형식이 발전할수 있었다.

향찰이 우리 민족의 시가형식을 기록하기 위해 창안되었으나 그것은 규범화하기 어려운 서사방식이였다. 그러므로 후세에 이르러 향찰식표기방법은 점차 사라지고 한문운문의 형식을 그대로 리용하는 경향이 많아졌지만 한문운문으로써는 기록하기 어려운 우리 말 노래를 기록하는 방법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던것이다.

한자로 기록한 우리 말 노래는 한문운문이 아니다. 한자로 기록된 우리 말 노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시가형식의 작품으로서 그 내용뿐아니라 형식까지도 가능한껏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학유산이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학유산을 더 많이 발굴정리하고 내용과 형식에서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찾아냄으로써 우리 인민의 값높은 향유물로, 나라의 재보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우리 말 노래, 시조, 향찰